

이대로 가면... 전남 17개 시·군 30년내 사라져

'설상가상' 광주국제영화제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

고흥·신안 등 인구 감소...타 지자체와 통합합 불가피 20~39세 젊은 여성 안정적 정착 대책 마련 급선무

고흥·신안 등 전남지역 17개 시·군이 향후 30년 이내에 사라지면서 전남도가 다른 광역단체와 통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각 시군의 인구가 자연 소멸되고 그 인구 수가 광역단체 유지 수준에 못 미치게 되면서 다른 광역단체와 통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남이 '소멸'이 아닌 '생존'의 길로 가기 위해선 만 20세~39세 젊은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이 쓴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중 30년 이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77.27%인 17곳이

다. 전국적으로 77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이중 전남이 17개로 22.07%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 위원은 지역의 '소멸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20세~39세 가임 여성 인구 추이에 주목했다.

소멸 위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젊은 여성 인구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고령 인구 비중은 20%를 넘어 상대비중(20~39세 여성 인구 비중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0.5 미만인 곳으로 설정했다.

이 방식대로 분석한 결과, 고흥은 상대비중(20~39세 여성인구 6.7%, 65세 이상 인구 35.3%)이 0.19(전국 2위)로 전남에서

가장 위험수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어 신안(0.22)·함평(0.24)·보성(0.24)·곡성(0.25)·진도(0.26)·구례(0.27)·장흥(0.29)·완도(0.29)·강진(0.31)·해남(0.33)·담양(0.34)·장성(0.35)·영광(0.37)·나주(0.40)·영암(0.44)·화순(0.45) 등의 순이었다.

양자간 상대비중이 1대 1 일때 인구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방어선인데, 상대비중이 0.5 미만이라는 것은 인구 소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이 위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젊은 여성인구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나 광주 등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전남의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고흥은 20~39세 젊은 여성의 인구비율이 지난 10년간(2004년~2014년) 45.1% 급감했고, 화순은 39.9% 줄었다.

특히 지방소멸이 비단 전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도시인 광주까지 그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광주는 그간

인구가 감소할 경우 전남 등 도단위의 인구 이전 등을 통해 대도시의 인구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를 감안하면 전남 등 다른 도단위의 광역인구가 자연 감소하면 광주 역시 대도시 인구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이 위원은 지방이 생존의 길을 걷기 위해선 젊은 여성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 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젊은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시설, 결혼 후 주거환경 등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들 여성 스스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각 지자체가 단순히 고용률 70%를 달성한다고 공공근로를 늘리기보다 젊은 여성인구를 해마다 1%씩 늘리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시, 지난해 예산 3억 환수 나서고 '부적정 정산' 900만원 세금 환수 통보

광주시가 극심한 내부갈등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를 상대로 지난해 지원했던 예산 환수에 나섰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 조직위 측에 '6월 24일까지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년도 교부결정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조직위는 광주시가 지난해 광주영화제에 지원한 예산 3억원의 정산서류를 2개월째 제출하지 않았던 내부 갈등으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광주국제영화제 정한담 이사장은 사무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A 이사의 전횡을 문제 삼아 이사회를 열어 A 이사를 해촉했으며 A 이사는 이에 반발해 정산 서류 제출을 미루고 있다. 정 이사장은 A 이사가 서류를 제출했다며 절도 혐의도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한 상태다.

광주시는 애초 검찰의 항고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조직

위 해체론이 나오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예산 환수에 나섰다.

옛전 대 대전 격으로 조직위는 올해 초 세무서로부터 지난 6년간 부적정한 정산으로 900여만원을 내라는 환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 조치에 따라 올해 영화제에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 2억7000만원은 집행이 불투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조직위의 갈등으로 6월 30일 개최하려던 영화제도 무기한 연기돼 사실상 올해 영화제가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런 와중에 정 이사장은 최근 베이징 국제영화제에 참석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직위에서 서류를 낸다고만 하고 실제로 제출하지 않아 교부 결정을 취소 통보를 하게 됐다"며 "기한 내에 정산서류를 내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배경 웹드라마 '원스 어폰 어 타임...' 내달 첫 선

23일 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서

광주를 배경으로 한 웹드라마 제작돼 오는 6월23일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첫선을 보인다.

30일 페스티벌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웹드라마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광주'가 지난 25~27일 광주 일대에서 촬영을 마치고 편집에 들어갔다.

드라마는 '스마트 폰'을 매개로 시공간을 초월해 벌어지는 남녀간 만남을 그리고 있다.

우연히 스마트폰을 쫓게 된 조선시대 유몽인이 2016년 여자 주인공과 통화하며 21세기 세상을 접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고흥 출신 어우당(於于堂) 유몽인(1559~1623)이 지은 한국 최초 야담집 '어우야담'을 모티브로 했다.

JTBC드라마 '옥씨남정기'에서 비정규직 '울' 역할로 주목받았던 황보라가 여자 주인공을 맡았다. 황씨는 이번 웹드라마에서 10년째 등단하지 못하고 있는 만년작가지방생 역할로 시청자를 만난다. 남자 주인공 유몽인 역에는 '태양의 후예'에 출연했던 신인배우 김동환이 출연한다.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현대 공간은 송정역과 충장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 등이 로케이션 장소로 사용됐다. 남자 주인공이 사는 과거 공간은 증심



지난 2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웹드라마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광주' 여주인공 황보라가 촬영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과거와 현대를 오가는 내용으로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에서 만날 수 있다.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 제공>

사 일대에서 촬영됐다.

이번 웹드라마는 국내 최초 웹드라마 전문회사인 '빅프로그'가 제작하며 감독은 2010년 영화 '찰나', 2013년 '홀리', 웹드라마 '드림나이트(Dream Knight)' 등을 연출했던 박병환씨가 맡았다. 총 5분짜리 4

부작으로 편성된다.

박 감독은 "광주 과거와 현재 모습을 드라마 형식을 통해 재미있게 보여주면서 문화와 볼거리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생각이 다"며 "웹콘텐츠페스티벌 느낌을 살리기 위해 모바일과 디지털적인 요소를 넣었고

광주 자체가 좋은 콘텐츠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은 오는 6월23~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진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국, 로봇에 뺏길 일자리 비율 OECD 최하위

한국이 로봇으로 대체될 위험이 큰 일자리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추산됐다.

30일 OECD가 최근 발간한 '자동화와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OECD 21개 회원국 내 일자리의 자동화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일자리 중 평균 9%가 자동화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될 위험이 크다는 것은 로봇 등으로 대체될 위험이 70% 이상이라는 뜻이다.

이는 OECD 국가 내 과업구조에 대한

설문조사인 PIAAC(성인 역량 국제평가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대상 OECD 국가 중 한국과 에스토니아 등은 로봇 등으로 대체 위험이 큰 일자리 비율이 6%로 가장 낮았으며 핀란드, 벨기에, 일본 등이 7%를 기록했다.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덴마크 등은 9%,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체코 등은 10%로 추산됐다. 반면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자동화 위험이 큰 일자리 비율이 12%로 추산돼 분석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하반기부터 푸드트럭 이동 영업 가능

푸드트럭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고정영업 규제가 하반기부터 없어져 '푸드트럭 존'에서 옮겨 다니며 장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푸드트럭의 이동营业을 위한 새로운 허가방식 도입과 지역 일자리창출시설에 대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푸드트럭은 사업자 1명에게 특정 장소 1곳에 장기간(1~5년) 허가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동영업을 하려면 여러 장소를 사용 허가해주고 사

용료는 전체 장소에 연 단위로 부과해야 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여러 '푸드트럭 존' 안에서 여러 영업자가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용료는 연간 단위가 아닌 영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시간과 횟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원이나 유원지에 영업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이 아침과 점심때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으로 옮겨 장사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담도 기존보다 크게 줄어든다.

/연합뉴스

광신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전형일정

① 원서 접수 : 2016. 5. 30(월) ~ 6. 8(수)
 ② 전형일 : 2016. 6. 10(금)
 ③ 합격자 발표 : 2016. 6. 14(화) ④ 등록기간 : 2016. 6. 14(화) ~ 15(수)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실용음악학과(M.A.)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사소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일원의 원호사 상가 이주 및 한옥 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26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열람내용 : 원호사 상가 이주 및 한옥 단지 조성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가. 제한지역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일원
 ○ 면적 : 168,137㎡
 나. 제한지역 지정사유
 ○ 개발예정인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일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상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행위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허가사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 화원설치 및 수목식재 등 보상목적의 일체행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신고·일시사용허가 등

(허가할 수 있는 행위)
 ①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②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③ 지반의 붕괴 그 밖에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제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④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⑤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⑥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⑦ 그 밖에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2. 의견청취(열람) 기간 : 2016. 06. 01. ~ 2016. 06. 15.(14일간)
 ○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3. 공고방법 : 일간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과 (062-410-6730)

5. 본 열람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민의견청취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